

IMF 體制의 影響과 對策

1. 林業部門에 미치는 影響

□ 木材需給 및 加工産業

- 총목재수요량 25백만m³의 96%를 輸入에 依存
 - 품목별 輸入의존도 : 원목 87%, 제재목 22%, 합판 51%, 보드류 20%
- L/G개설에로 및 輸入목재가격 상승으로 原資材 導入難가중
 - 원목 : ('97.10) 90천원/m³ → ('97.12) 158천원/m³(75%상승)
 - 합판 : ('97.10) 403천원/m³ → ('97.12) 806천원/m³(100%상승)
-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및 제조원가상승으로 經營難심화
 - 환율 1,500원/\$의 경우 1조8천억원의 추가비용 발생
 - 환율 10%상승시 제조원가 부담 : 합판 6.6%, 제재목 9%

- 장기적으로 목재수입은 감소하고 國產材는 가격경쟁력 제고로 생산확대 전망

□ 短期所得 林産業 및 林産物 輸出

- 경기침체에 따라 밤, 표고 등 短期所得林産物의 소비감소 예상
 - ※ 소득 5% 하락시 소비감소율 : 밤 3%, 표고 7%, 대추 16%
 - 표고는 시설자재 및 유통가격 상승으로 생산감소 예상
 - '97생산량이 크게 증가된 밤은 공급과잉 상태 지속될 전망
- 섬유판, 集成材등 국산원자재 이용도가 높은 품목은 수출경쟁력 제고로 수출증대 예상

□ 木材供給對策

- 國產材 공급확대로 木材需給 안정도모
 - 목재업계 우선소요량 300천m³을 '97벌채재하량과 '98. 1~2월 벌채계획에 반영하여 우선

- 공급
- 벌기령(25년)에 도달한 리기다 소나무 벌채를 확대, 보드류 원료로 공급(160천m³→300천m³)
- 영림계획상 벌채실행 및 간벌 수집률 제고(53%→80%)

※ 국산재 공급량 : ('97) 1,232천m³→('98) 1,532천m³(24%증)

○ 廢木材 再活用대책

- 국내 폐목재 총발생량 : 10,510천m³('96년 기준)

폐목재 종류	발 생 지	발생량(천m ³)	재활용 여부
계		10,510	
임지 폐목재	무육간벌, 표고자목	615	일부 수집이용
산업가공 폐목재	합판, 제재소	2,800	PB, 톱밥용 공급
생활 폐목재	가구	730	재활용 부진
건설 폐목재	건축, 토목	5,740	"
물류유통 폐목재	포장재, 고기상자	625	일부 재활용

- 우선 거꾸집용 합판(년 300~500천m³ 발생)등 건설·물류유통 폐목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(관계부처와 협의)

※ 폐목재 재활용 효과

- 건축폐목재 50% 수거시 수입목재를 대체하여 220백만\$절감
- 폐재사용시 수입원목에 비해 원료비 50% 감소

○ 수입목재 확보 방안

- 제3국을 통한 L/G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한 수입추진
- 해외 진출업체가 개발한 목재(년 140만m³)의 국내 우선 공급 유도

□ 林産物 輸出推進對策

- 송이는 內需用 사용제한으로 생산량의 全體 輸出을 추진

- ('97) 251톤(3천만\$)→('98) 350톤(4천만\$, 39%증)

○ 생산자단체를 통한 생표고 수출 확대 추진(20톤, 40만\$)

- 밤 輸出市長 多邊化를 위하여 금년부터 생산되는 박피밤의 50%를 유럽시장에 수출(1,000톤, 250만\$)

○ 경쟁력 있는 木材의 輸出 産業化

- 합판 : 컨테이너용 합판 대중국 수출 확대

· ('97) 34백만\$→('98) 80백만\$(135%증)

- 섬유판 : 생산량 증가 및 가격 경쟁력 향상에 따라 수출증대

· ('97) 26백만\$→('98) 30백만\$(15%증)

- 임산물유통센터의 國內材 사용제품의 직접 수출 확대

· 集成材 수출 : ('97) 1.2만\$→('98) 30만\$